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 “세계적 에너지도시 나주 건설...행정 정상화부터”

## 윤병태 나주시장

“새로운 영상강 시대, 새로운 나주의 시작, 세계적인 에너지국제도시 건설이라는 담대한 대장정의 길에서 나주의 도약을 위해 행정을 정상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2일 광주일보와의 대담에서 “빛가람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대를 나주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나주 경제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시장 목표로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가 꽃피고 아름다운 경관이 사랑받는 ‘융성하는 문화관광’과 농축산업이 대접받고 농촌마을이 활기를 찾는 ‘중흥받는 농업농촌’,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고 골목상권에 온기가 넘치는 ‘미래선도 활력경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최고의 교육 여건을 갖추고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 ‘명품교육 맞춤형’과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중심 혁신행정’ 실현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취임사에서 밝힌 ‘성과행정’, ‘참여행정’, ‘소신행정’에 대한 구체적 복안은.

▲ 간부공무원들과 첫 상견례를 통해 성과중심의 행정을 통한 일 잘하는 시정을 주문했다. 특히 시민의 요구에 대해 예산타령, 규정타령, 권한타

## 전남도·한전·에너지공단 등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 속도 국제학교·대형 의료시설 유치... ‘SRF’ 광주·전남 상생 과제로

령의 3대 타령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공리를 통해 해법을 찾는 문제해결 행정이 공식사회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시민이 시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여행정’인데 시장 후보시절 방방곡곡 경청투어, 인수위에서 운영한 시민신문고 등의 소통 경험을 살려 시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시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더불어 시민의 시장 참여가 더 활성화되도록 예산운용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

마지막은 나주 공동체의 희망찬 미래, 시민을 향한 ‘소신행정’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나주 공동체 행복과 미래발전을 위해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안과 이에 대한 시정방향은.

▲ 빛가람 혁신도시를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국가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에너지국제대학교’로 조성하는 것이다. 취입 후 첫 업무협약으로 전남도, 한전, 한국에너지공대와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조성’을 체결했는데, 에너지 리더 그룹 간 협력을 통해 산

·학·연·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 기업, 연구소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혁신도시를 세계적인 에너지 연구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16개 공공기관 본사가 나주로 이전해왔다는 것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큰 축복이다. 혁신도시 시·군2의 통상적 개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현재 혁신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문화·체육·소방시설 확충과 초·중·고 학생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국제학교 등 명문학교 신설, 아동·여성전문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 유치, SRF·약취문제 해결 등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의 완성을 도모하겠다.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지난 달 30일 한국남방공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적,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좁아진 상황인데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부터라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법적 소송, 가동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자. 그리고 광주시의 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한다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다.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처리원칙이 기본이라고 본다. 지난 5월 선거기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황인 만큼 SRF문제를 광주·전남의 공동 과제로 놓고 상생과 연대의 차원에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명품교육 맞춤형지 실현에 대한 복안은.

▲ 예전에는 명문대에 많이 보내는 게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자기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있는 시대다.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맞춤형 교육, 생생한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약으로 ‘미래교육 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 나주의 인재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에 인재육성재단이 있고, 나주에는 교육진흥재단이 있다. 해외교육프로그램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서는 1인가구 증가,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 특히 어르신 복지와 관련, 경로당에 입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펼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복지수요를 잘 살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특별자치도 실익 면밀히 따져봐야”

## 광전연,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적 시사점 제시 지역 주도의 차별적 추진 논리 발굴 등 공론화 필요

제주에 이어 강원, 전북, 경기 북부 등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해 광주·전남 역시 지역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의 권한이 늘어나고 재정 기반 역시 탄탄해진다는 장점이 있어 광주·전남의 경우 지역 발전 차원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추진 전략을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2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이 광주전남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008년 도의회를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을 요구해 왔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채

택되면서 본격적인 입법화가 추진됐다.

5월 강원특별법이 통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는 별도의 법률로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보장받게 되는 자치단체로 2006년 제주도가 처음 지정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정부의 직할로 설치되며, 법에 따라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양 기관을 비롯해 조선대와 광주남구가속센터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가해 진료소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보건 환경이 열악한 마을에서 환경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의료봉사활동에는 조선대병원 순환기내과 장경식 교수와 정형외과 손흥문 교수가 참여하고 학생,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및 후원물품을 지원한다. 또 조선대치과병원도 캄보디아 현지 주민을 위해 치약칫솔 세트를 후원한다.

김경중 조선대병원장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또한 가능하다. 이처럼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강원도는 접경지역, 상수원, 산림자원 등에 대한 폭넓은 규제 완화와 더 많은 자치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송효진·김대성 박사는 “특별자치도 추진이 당장의 지역 위기를 극복할 최적의 대안인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 이후 변화를 통해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광주·전남만의 차별적 추진 논리를 마련해야 하며,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지역 주도의 총출력 이행전략과 입법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형 소핑몰’ TF 구성 시, 한달 내 모형 제시

광주시가 복합소핑몰 유치를 추진할 전남 조 직을 구성하고 한 달 동안 ‘광주형 모델’을 구상해 내놓기로 했다.

정종임 광주시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하고 “국정과제이자 지역 현안인 복합소핑몰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문화관광체육실장을 팀장으로 도시계획과장, 주택정책과장, 민생경제과장, 확 인평가담당 등이 참여한 한 달간 운영한다.

광주시는 ‘국가지원형 복합소핑몰 TF’로 이름 짓고 국가 지원을 끌어낼 방안 마련에 주력 하겠다는 의지다.

국가 지원과 함께 민간 자본 투자, 행정의 신속한 인허가 등 심박자를 갖춘 복합소핑몰 모형, 기능, 성격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광주 지역 이슈로 떠오른 복합소핑몰 건립에는 현대 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건립 추진 선언을 시작으로, 광주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빅3’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벌써 8년’

## 조선대병원·아시아희망나무, 13~18일 의료봉사·환경 정비

조선대병원과 (사)아시아희망나무가 공동으로 13일부터 18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봉사활동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단체

인 (사)아시아희망나무와 조선대병원이 공동주최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의 개소 8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개소 8주년을 기념해 의료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의료봉사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열악한 보건의로 환경 속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복지 향상과 보건환경의 개선을 위해 매년 국내외의 의료봉사를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재개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